

교수들의 도서관 이용과 서지교육 인식도*

Library Use Patterns among Faculty Members & Faculty Awareness Toward Bibliographic Education

강 혜 영 (Hye-young Kang)**

〈 목 차 〉

- | | |
|----------------|--------------|
| I. 서론 | 3. 봉사요구와 인식 |
| II. 연구방법과 내용 | 4. 교수들의 조사기술 |
| 1. 연구 방법 | 5. 교수 서지교육 |
| 2. 조사 내용 | 6. 학부생 서지교육 |
| III. 데이터분석과 토론 | 7. 통합 서지교육 |
| 1. 응답자들의 특징 | IV. 결론 및 제언 |
| 2. 도서관 이용 유형 | 참고문헌 |

초 록

교수들의 이용행태와 서지교육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C 대학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 20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56%가 회수되었다. 교수들의 이용행태를 조사하였다. 10명 이내의 희망자 그룹으로 시행되는 교수의 서지교육을 원하며, 신입교수의 서지교육과 학부생 서지교육은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통41.1%의 교수는 통합적인 서지교육에, 46.4%의 교수는 교과목 운영에서 사서와 협력하고자 하나, 평소 사서와 친분이 있는 교수는 15.2%이다. 57.1%의 교수가 교과목 숙제에서 도서관 자료의 활용을 격려하고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library use behaviors among faculty members and faculty awarenesses toward bibliographic education for undergraduates. Questionnaire listings offered by C university library were sent 200 faculties. 56% responded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① They used library one more times per a month and during vacations & preferred to use scholarly journals. ② They wanted 'subscription for scholarly journals,' 'inter-library loan,' but they seldom experienced in inter-library loan. ③ They gained the library skills in experiences and they had the average level of library skills. They used secondary sources and recognized traditional reference services. ⑤ They intended to bibliographic education for the faculty and the wanted group of 10 less and education for the new faculty members. ⑥ They thought that students should be able to learn needed library skills. but wasn't necessary. ⑦ They intended to intergrate Bibliographic education and cooperate with librarians. But they hadn't been familiar with librarians and encouraged students to use library.

* 본 논문은 전북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khelen@moak.chonbuk.ac.kr

I. 서 론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연구 및 교육기능을 지원하는 중요시설로서 대학을 설립하는데 필수적인 기관인 동시에 대학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대학에서 도서관은 흔히 "대학의 심장"으로 불리우고, "연구센터"이고 대학의 학술적 우수성을 평가하는 "기준"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대학도서관이 대학과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교수와 도서관도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교수는 대학의 기능 중에서 주요한 기능인 교육기능과 연구기능의 성패를 가름하는 주요 집단으로 대학도서관은 교수들을 가장 핵심적인 이용자중의 한 그룹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 사회에서 교수들은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만 특히 대학도서관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서지교육에서 차지하는 교수의 위치는 막중한 것이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서지교육의 중요성을 전달할 수 있는 조종자이며,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교수들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 여부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있다. 학부 학생들은 심리학적인 이유로 단순히 참고자료가 아니라 교수, 그 분야의 전문가, 친구, 도서관과 같은 정보자료 중에서 정보를 탐색하는데 사용하는 일차적인 정보원으로서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교수들이 가장 중요한 정보원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교수가 정보 사슬 속의 한 요소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서지교육의 효과를 위해서 뿐 아니라 도서관을 중시하는 순수함이 캠퍼스 안에 만연하고, 그 자원들이 모두 교육적, 문화적, 연구중심의 그리고 여가 선용을 위한 활동에 창조적으로 활용되며, 사서들 또한 공동의 지적인 사업에 동등한 파트너가 될 수 상황인 "서지적 문화(Bibliographic Culture)"¹⁾를 캠퍼스 내에 창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 교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언어적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위상과는 달리 대학도서관은 총장이나 대학당국의 관계자, 일반 교수들에게 "중핵시설"이나 "심장"으로 실제로 작용되거나 인식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로 인해 도서관 직원과 교수들은 인식점을 달리하여 서로의 불만을 커지고 있다. 도서관 직원은 교수들을 위해 상당한 예산과 인력을 동원하여 여러 가지 자료와 도서관 봉사를 지원하고 있으나 교수들의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교수들은 그들이 필요한 자료가

1) Michael Keresztesi "Bibliographic Instruction in the 1980s and Beyond," in Directions for the Decade : Library Instruction in the 1980s, Carolyn A. Kirkendall, ed.,(An Arbor, Mi. : Pierian Press, 1981), 최은주, "미국 대학도서관에서의 서지교육의 동향에 관한 고찰," 《경기대학교논문집》 23집(1989), pp. 74-5.재인용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못하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명실상부하지 못한 대학도서관의 위상은 한국 대학의 교수문화와 관계가 있다. 대학도서관이 실질적으로 인체의 심장과 마찬가지로 일순간이라도 정지하여서는 안되는 기관으로 작용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교수들이 그들의 연구와 교육에 도서관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바로 인식하고, 도서관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봉사를 어떻게 활용하여야 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도서관에서 그들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봉사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는 Waples²⁾에 의해 1930년대에 시작되었다. 그 이후 연구의 대부분은 학생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교수에 대한 것은 몇몇에 불과하다. 대학도서관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교수들의 이해도에 대한 것(Knapp, 1959),³⁾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것 (Mount, 1966⁴⁾와 Hart, 1966⁵⁾), 참고봉사에 대한 것(Nelson, 1973),⁶⁾ 교수들의 도서관 인식 요인에 대한 것(Davis and Bently, 1979)⁷⁾ 등으로 대부분 외국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교수들의 도서관이용에 대한 연구는 극히 소수로 문창룡(1992)의 이공계 분야 교수를 중심으로 한 대학도서관 비이용 요인에 관한 연구와 고민정(1995)의 대학도서관 정보봉사에 대한 교수의 인식도 분석이 있다.

교수들의 전반적인 도서관 이용에 대한 연구와 달리 서지 교육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는 외국에서도 적은 편이며, Joy Thomas(1984⁸⁾, 1994⁹⁾), Rae Haws, Lorna Peterson and Diana Shonrock(1989),¹⁰⁾ Larry Hardesty(1991),¹¹⁾ Anita Cannon(1994),¹²⁾ Fran

-
- 2) Douglas Waples, "The library. pt. iv. : *The Evaluation of Higher Institutions.*"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6, pp. 61-67. 문창룡, 『대학도서관 비이용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1992. p. 7 재인용.
 - 3) Patricia B. Knapp, *College Teaching and the College Library*, Chicago : ALA, 1959. p. 93. 고민정, "대학도서관 정보봉사에 대한 교수의 인식도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1995. p. 3 재인용
 - 4) Ellis Mount, "Communication Barriers and the Reference Question," *Special Libraries*, vol. 57, No. 12(Oct. 1966), pp. 576-578.
 - 5) Flonce De Hart, "The Application of Special Library Services and Techniques to the College Library,"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 27, No. 2(March 1966), pp. 130-133.
 - 6) Jerold Nelson, "Faculty Awareness and Attitudes Toward Academic Library Reference Service : A Measure of Commucation,"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 34, No. 4(Sept. 1973), pp. 268-275.
 - 7) Jinnie Y. Davis and Stella Bently, "Factors Affecting Faculty Perceptions of Academic Librarie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 40, No. 6(Nov. 1979), pp. 527-532.
 - 8) Joy Thomas, "The University Faculty and Library Instruction," *RQ* Vol. 23, No. 4(Summer 1984), pp. 431-436.
 - 9) Joy Thomas, "Faculty Attitudes and Habits Concerning Library Instruction : How much has changed since 1982?" *Research Strategies* 12 (Fall 1994), pp. 209-223. Fran Nowakowski and Elizabeth Frick, "Are Faculty Attitudes Towards Information Literacy Affected by Their Use of Electronic Databases? A Survey," *Continuity & Transformation : The Promise of Confluence*, ed. Richard AmRhein. Chicago : ACRL, 1995. p. 118. 재인용.
 - 10) Rae Haws, Lorna Peterson and Diana Shonrock, "Survey of Faculty Attitudes Toward a Basic Library Skills Course," *College & Research Libraries News*, Vol. 50, No. 3(March 1989), pp. 201-203.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0권 제 4호)

Nowakowski and Elizabeth Frick(1995)¹³⁾ 등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서지교육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도를 연구한 것은 전혀 없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서지교육은 대학도서관의 핵심 이용집단이며, 학생들에게 서지교육 학습의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교수들이 도서관 정보원을 성공적으로 이용하고, 서지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서지적 문화 환경이 조성된 후에 비로소 그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순환적인 연계를 가지기 위해 먼저 교수들의 도서관 봉사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교수들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도서관 봉사 수준을 측정하고, 교수들에게 필요한 정보봉사를 현재보다 더 충분히 활용하게 하고, 나아가 정보봉사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교수를 통해서 학생들이 서지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도 아울러 도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수들이 그들의 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봉사에 대한 이용과 인식 정도를 살펴보고, 차세대 도서관 문화를 형성할 학생들에게 서지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매개자인 교수들의 서지교육 인식도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다.

II. 연구방법과 내용

1. 연구 방법

대학도서관 봉사와 서지교육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대학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C대학에서 분야에 관계없이 시간강사를 포함하여 실제로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이하 교수라 칭함) 2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방법으로 조교를 통해 간접적으로 배부하였다.

조사는 1999년 6월1일부터 3주 동안 실시되었다. 총 113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나(회수율 56%), 불성실한 1부를 제외하고 총 11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 PC+를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11) Larry Hardesty, Faculty and the Library : *The Undergraduate Experience*. New York : Ablex, 1991.

12) Anita Cannon, "Faculty Survey on Library Research Instruction," RQ Vol. 33, No. 4(Summer 1994), pp. 524-541.

13) Fran Nowakowski and Elizabeth Frick, pp. 117-124.

2.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크게 교수 생활을 포함한 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사항,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 서지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부록 참조), 설문은 도서관 인식에 관한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교수 생활을 포함한 개인적 사항은 전공 분야, 직위, 강의 경력이고, 개인적인 사항은 성별, 나이이다.

도서관 이용 행태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 이용하는 시기, 이용빈도, 이용하는 자료, 기대하는 도서관 서비스, 2차 자료의 이용, 상호대차 이용, 참고봉사의 인식 등이다.

교수들의 도서관 이용 수준에 대한 사항은 먼저 교수들이 도서관 이용기술을 습득한 경위와 수준을 조사하고, 교수를 위한 서지교육의 필요성을 조사하였다. 서지교육의 필요성은 교수들의 도서관 이용 기술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포맷의 참고정보자료가 속속 출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수적이라는 가정 하에 설정하였다. 교수들을 위한 서지교육의 참여 의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교수를 위한 서지교육 시행시에 참여 의사, 교육방법, 신임교수를 위한 서지교육의 필요성을 알아보았다.

학부생들의 서지교육에 대한 교수의 역할에 대한 사항은 학부생들의 서지교육 필요성에 대한 교수의 인식, 학부생의 서지교육을 위한 전공 시간의 할애 가능성을 설문하였고, 통합 서지교육에 대한 사항은 교수들이 교과목을 설계할 때 정보자료 활용법을 이용하도록 할 것인가, 교과목을 강의할 때 사서와 공동으로 할 의지가 있는가, 학생들에게 리포트를 부과할 때 학술잡지나 전자정보원의 이용을 독려하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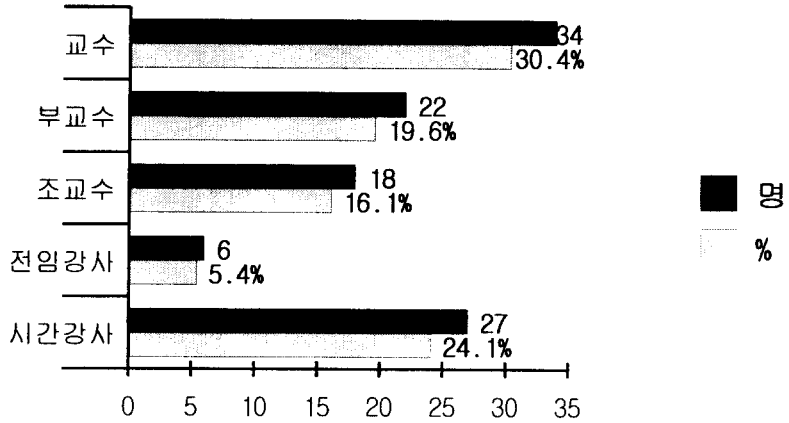
III. 데이터 분석과 토론

1. 응답자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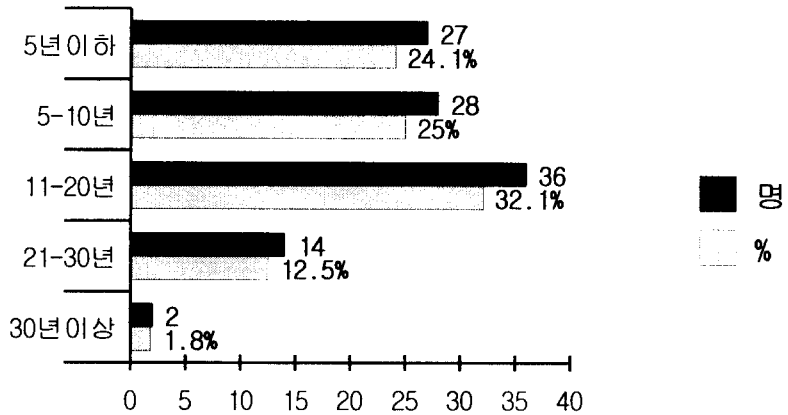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112명의 교수 생활을 포함한 개인적인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직위, 강의 경력, 성별, 나이 등을 분석하였다. 응답자들의 직위(표 1)를 살펴보면 교수가 가장 많았고(30.4%), 그 다음이 시간강사(24.1%), 부교수(19.6%), 조교수(16.1%), 전임강사(5.4%)의 순서로 되어 있다. 응답자의 강의 경력(표 2)은 10년 이상은 46.4%이고, 10년 이하가 49.1%이나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그룹은 11-20년의 경력자(32.1%)이다.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 30권 제 4호)

<표 1> 응답자의 직위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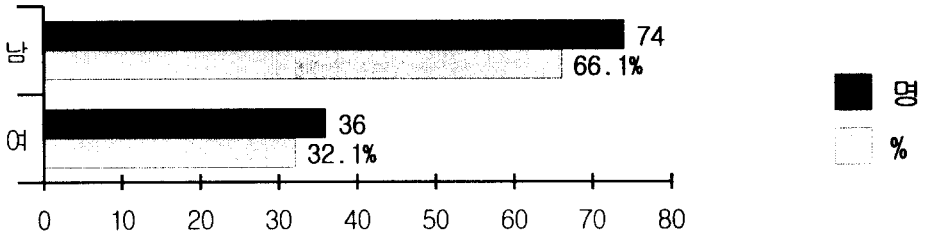


<표 2> 응답자의 강의경력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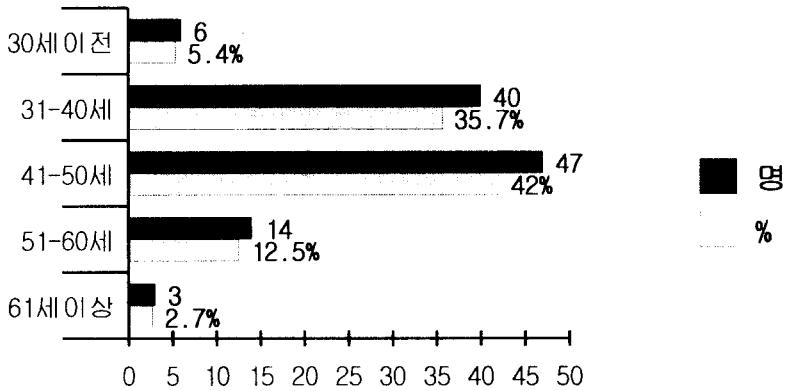


응답자의 성별(표 3)과 연령별 분포(표 4)에서 살펴보면, 응답자 가운데 남자가 66.1%로 여자(32.1%)의 2배에 해당된다.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대가 가장 많았고(42.0%), 그 다음은 30대(35.7%), 50대(12.5%), 20대(5.4%), 60대(2.7%)의 순서로 되어 있다.

<표 3> 응답자의 성별 분포



<표 4>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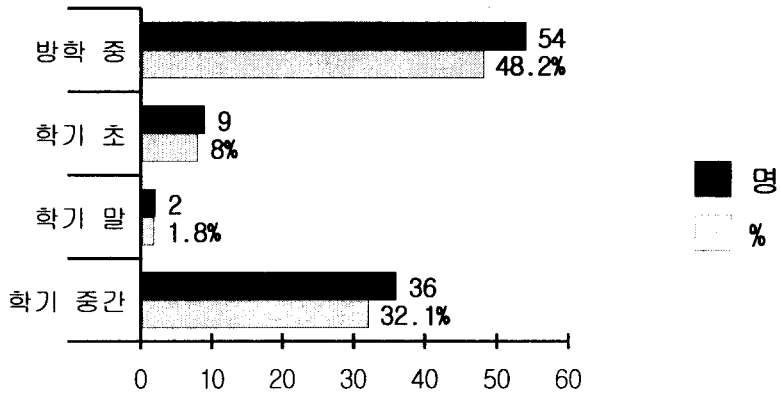


2. 도서관 이용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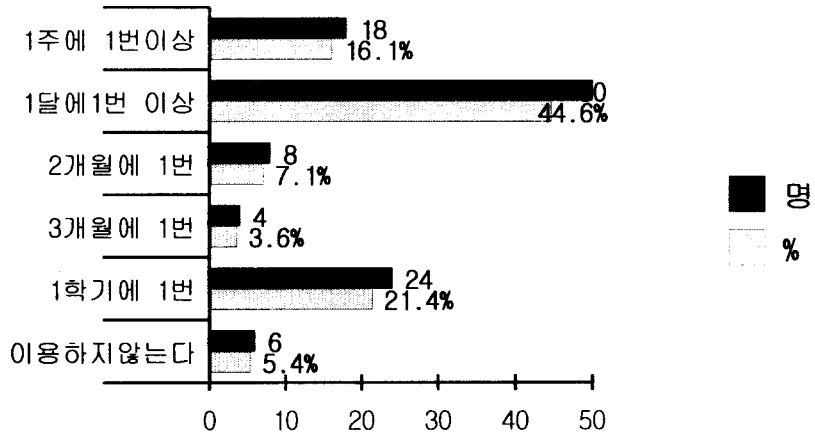
교수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용시기, 이용 빈도, 주로 이용하는 자료의 면에서 살펴보았다.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기(표 5)는 방학중이 가장 많으며(48.2%), 그 다음은 학기 중(32.1%), 학기 초(8.0%), 학기 말(1.8%)의 순서이다. 특히 학기말은 성적 처리 등 사무적인 업무로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거의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5>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시기



<표 6> 도서관 이용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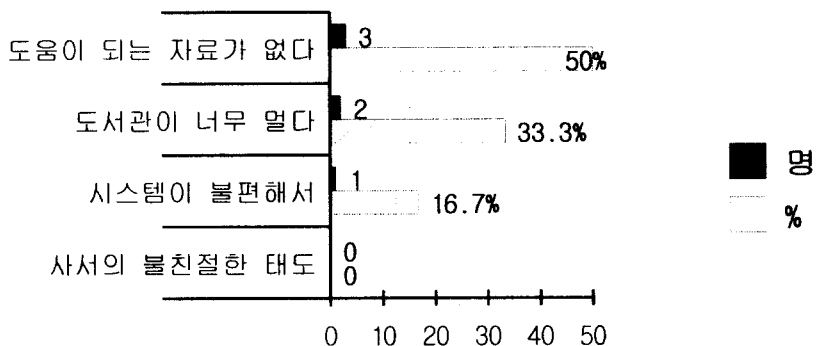


도서관을 이용하는 빈도(표 6)는 1개월에 1번 이상이 가장 많다(44.6%). 1학기에 1-2번 정도만 이용하는 그룹(21.4%)은 실제로 거의 이용하지 않는 그룹으로 볼 수 있다.

<표 6-1> 연령별 도서관 이용 빈도

이용빈도 \ 나 이	30세이전 (%)	31-40세 (%)	41-50세 (%)	51-60세 (%)	61세이상 (%)	무응답 (%)	계 (%)
1주에 1번 이상	1(16.7)	12(30.0)	2(4.3)	3(21.5)	-	-	18(16.1)
1달에 1번 이상	5(83.3)	17(42.5)	23(48.9)	4(28.6)	1(33.3)	-	50(44.6)
2개월에 1번	-	2(5.0)	4(8.5)	-	1(33.3)	1(50.0)	8(7.1)
3개월에 1번	-	-	2(4.3)	1(7.1)	-	1(50.0)	4(3.6)
1학기에 1-2번	-	6(15.0)	13(27.7)	4(28.6)	1(33.3)	-	24(21.4)
이용하지 않는다	-	2(5.0)	3(6.3)	1(7.1)	-	-	6(5.4)
무응답	-	1(2.5)	-	1(7.1)	-	-	2(1.8)
계	6(100.0)	40(100.0)	47(100.0)	14(100.0)	3(99.9)	2(100.0)	112(100.0)

<표 6-2>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중복대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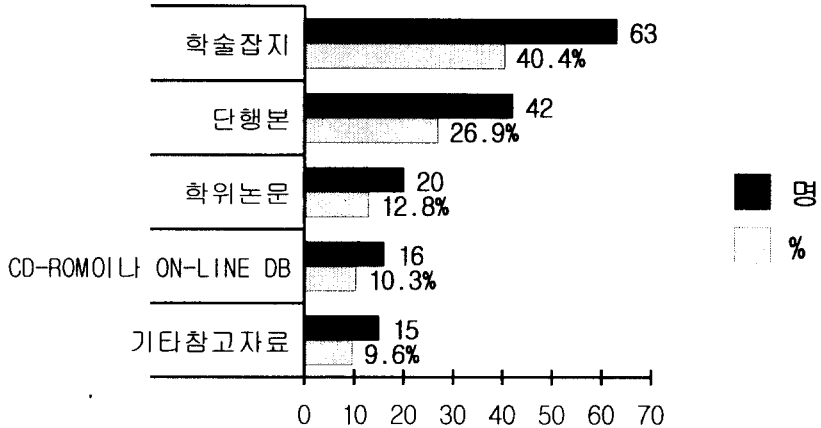


교수들의 연령과 도서관 이용율(표 6-1)에 대한 상관관계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도서관 이용율이 높은 것¹⁴⁾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본 연구에서도 찾을 수 있다. 즉, '1주에 1번 이상으로' 가장 빈번히 이용하는 그룹에서 20대·30대가 전체 이용자 18명 중에서 13명으로 72.2%에 달하고 있고, 비교적 자주 이용한다고 볼 수 있는 '1달에 1번 이상' 이용하는

14) Marta Merrill, "Regular and Irregular Library Use by Faculty Members at Three Universitie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Graduate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s. 1979. 문창룡, "대학도서관 비이용 요인에 관한 연구", p.9 재인용.

그룹(50명)에서도 20·30대의 교수가 44.0%를 차지하고 있다.

<표 7> 이용하는 자료(중복대답)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그룹이 표명하는 이유(표 6-2)는 '도움이 되는 자료가 없다'가 가장 많고, '도서관이 멀어서', '시스템이 불편해서' 등의 이유도 있었다. 기타 이유로 '시간이 없다'라고 별도로 밝힌 이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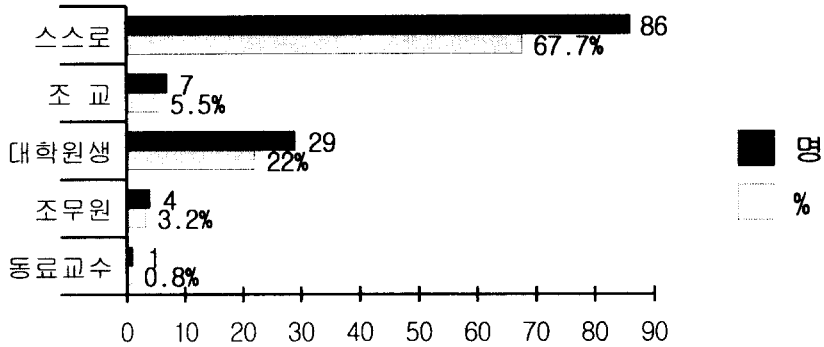
교수들이 이용하는 자료의 유형(표 7)은 학술잡지가 많고(40.4%), 그 다음은 단행본(26.9%), 학위논문(12.8%), CD-ROM이나 ON-LINE DB(10.3%), 기타 참고자료(9.6%)의 순서이다. 교수들이 도서관 이용 정보원 중에서 학술잡지를 선호하는 것¹⁵⁾은 연구에 관련되는 정보의 다수가 정간물 정보원에서 생성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학생들도 도서관의 정보원 중에서 학술잡지를 많이 이용하기를 교수들은 기대하고 있으나 학생들은 단행본의 이용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¹⁶⁾으로 밝혀졌다

교수들에게 필요한 정보의 검색과 대출의 수행자(표 7-1)는 교수들 '스스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67.7%). 타인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가장 많은 것은 대학원생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서지교육 필요성에 대해 교수들과 의견을 나누었을 때, 학생 자신들의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교수들의 검색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15) Mary K. Sellen and Jan Jirouch, "Perceptions of Library Use by Faculty and Students : A Comparison,"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 45, No. 4(1984 July), p. 266.

16) 위의 책, p. 260.

<표 7-1> 도서검색 및 대출 수행자



3. 봉사 요구와 인식

1) 도서관 봉사요구

교수들이 도서관의 봉사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제공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표 8>에서 살펴볼 수 있다. 교수들이 가장 기대하는 봉사는 학술잡지 구독(33.8%)이며, 그 다음이 도서관 상호대차(20.3%), 정보검색 대행(18.8%), 문헌 복사 서비스(13.6%), CD-ROM검색(7.5%)등이다.

교수들은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가장 손쉽고 빠르게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술잡지 구독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도서관이든 예산은 한정적이므로 교수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단위 도서관에 전폭적으로 수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소속 대학의 도서관에서 필요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도서관 상호대차를 이용하는 것이다.

경험이 많은 사서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진보화된 정보의 검색은 교수들에게 아주 필요한 것이나 도서관에서 최대봉사를 받은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학원생에게 위탁하거나 교수 스스로 하는 경우가 많다. 사서의 전문성을 실현하고 도서관의 위상을 높이도록 각 주제별 전문 사서를 양성하여 정보 검색의 대행 등 전문 정보봉사가 이루어야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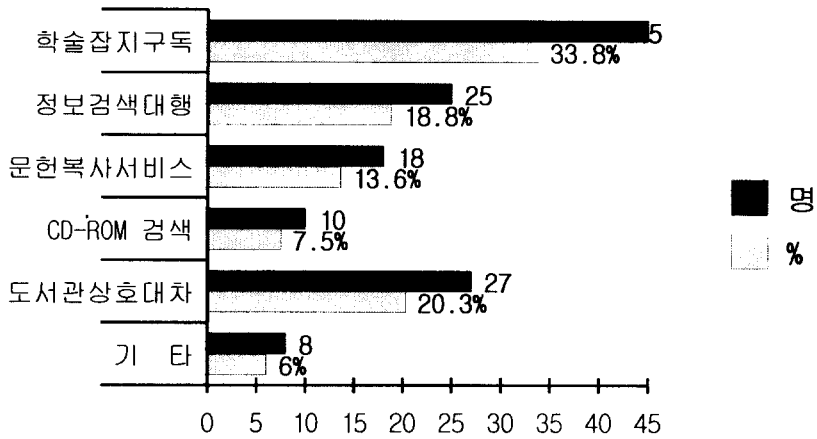
실제로 교수들이 주로 이용하는 본교 도서관에서 구할 수 없는 자료의 입수 방법 (표 9) 중 에서 가장 많은 경우(47.9%)는 외부의 다른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교수들이 필요한 자료를 상호대차(표 10)를 이용하여 구해 보지 못한 응답자가 72.3%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응답자들이 외부 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에 도서관 참고사서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사례는 개인적인 면담에서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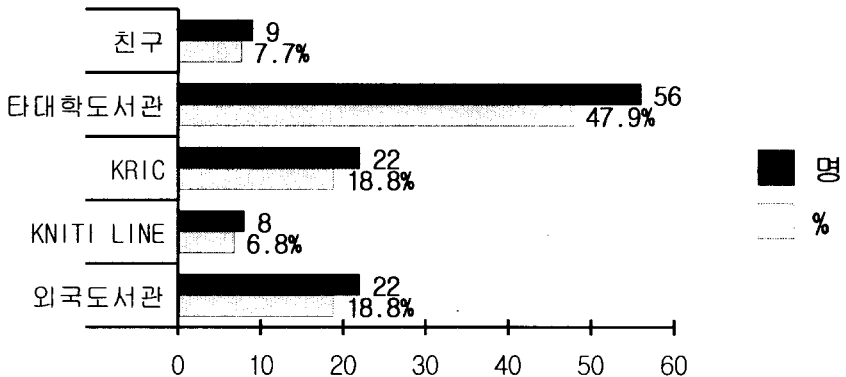
1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 30권 제 4호)

꿈 발견되는 것이기도 하다. 대학도서관의 상호대차는 시행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으나 이처럼 교수들이 널리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도서관봉사가 교수 사회에 널리 홍보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서관은 적극적으로 이용자 지향적인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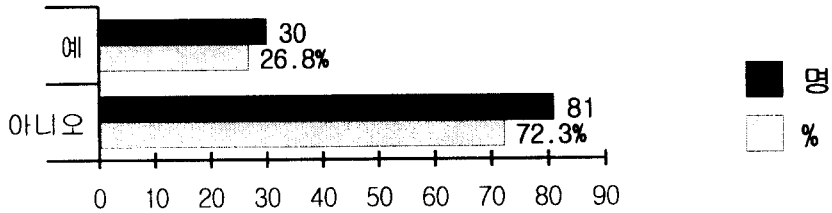
<표 8> 효과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도서관서비스(중복대답)



<표 9> 본교 이외의 자료입수처(중복대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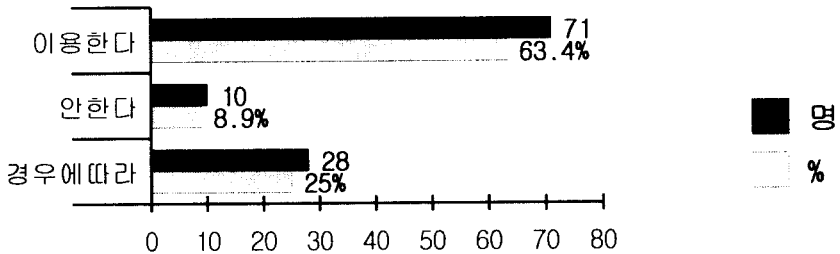


<표 10> 상호대차의 경험



2) 도서관 봉사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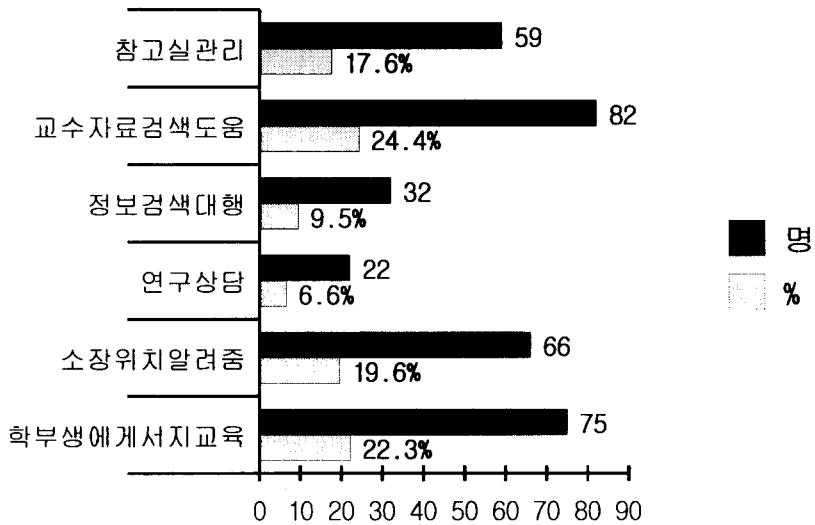
<표 11> 2차자료의 이용



교수들이 인식하고 있는 도서관 봉사의 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2차자료의 활용과 참고사서의 업무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였다. 서지, 목록, 색인, 초록 등의 서지적 정보원인 2차자료는 정보를 소재를 지시해주거나 한 책의 존재 유무를 알려주기 때문에¹⁷⁾ 학술 정보를 검색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자료이다. 전문적인 참고봉사를 수행하는 참고사서의 임무를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은 도서관 이용 기술 수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교수들의 2차 자료 이용(표11)을 살펴보면 '이용하는 그룹'(63.4%)과 '경우에 따라서 이용하는 그룹'(25.0%)으로 이들은 모두 2차 자료의 현재적인 이용자로 볼 때 그들은 질문자의 88.4%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교수들은 활발하게 2차 자료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17) 박준식, 『정보서비스론』,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98. p. 384.

<표 12> 참고사서의 업무인식도(중복대답)



도서관 참고봉사에 대해서 교수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가(표 12)를 살펴보면 참고사서의 업무가 교수들의 자료 검색에 도움을 주는 것(24.4%)이 라고 생각하는 그룹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학부생에게 서지교육'(22.3%), '소장 위치를 알려줌'(19.6%), '참고실 관리'(17.6%), '정보 검색 대행'(9.5%), '연구 상담'(6.6%)의 순이다.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봉사인 정보 검색 대행이나 연구 상담에 대한 인식(16.1%)보다 참고봉사에서는 비교적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봉사라고 할 수 있는 교수의 검색을 도와주거나, 학부생의 서지교육을 담당하는 것(46.7%)이 교수들에게 더 많이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참고사서의 업무가 참고실의 관리나 소장 위치를 안내하는 것으로 인식(37.2%)하는 점에서도 더욱 뚜렷이 알 수 있다. 이는 현재의 대학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참고 봉사에 대해 교수들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교수들이 실제 그들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봉사의 약 50% 정도만 인식하고 있음은 Nelson의 연구¹⁸⁾에서 밝혀진 바 있다.

도서관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봉사를 교수들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사서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서의 전문성 실현과 함께 이용자에 대한 도서관의 적응을 실현하기 위하여 참고사서를 비롯한 모든 사서들이 교수들뿐 아니라 대학 사회의 모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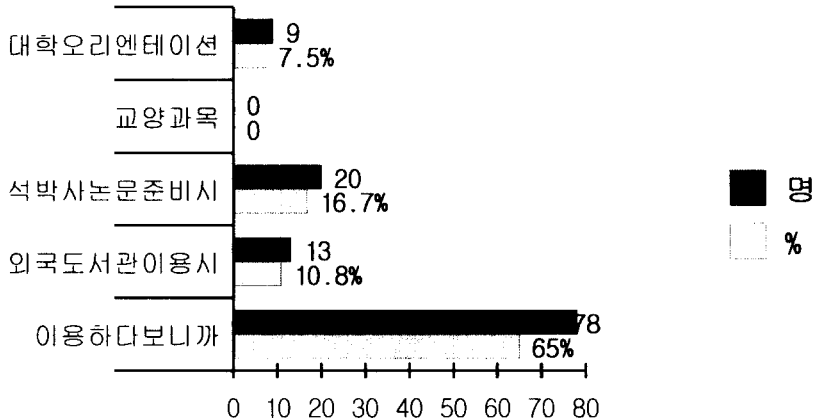
18) Jerold Nelson, pp. 273-274.

이용자들을 “소비자”로 간주하여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거나 개발하고 있는 봉사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교수들의 조사 기술

1) 습득 경위와 조사기술

<표 13> 도서관이용기술습득경위(중복대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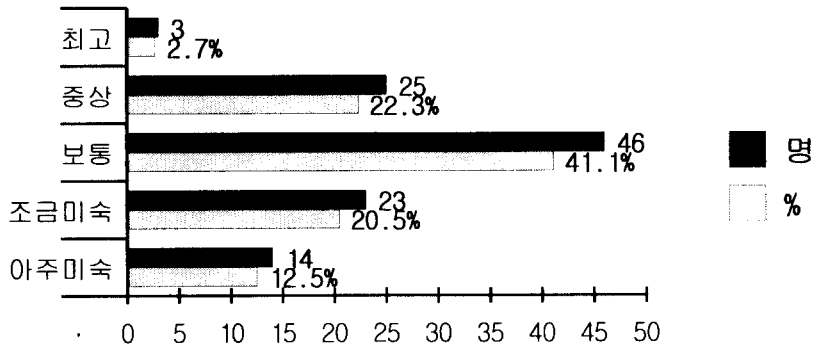
도서관 이용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주장은 미국에 있어서 일찍이 1800년대부터 나왔던 것이지만 대학생을 위한 이용자 교육이 활발해진 것은 1960년대 후반이다. 한국의 대학에서도 1960년대 후반에 오리엔테이션의 형태로 도서관 이용교육이 시작된 이래 교양국어 과정에 포함된 형태로, 독립 교과목의 형태로, 오리엔테이션의 형태로 다양하게 시행되어 오고 있다. 대개의 교수들은 도서관 조사 기술에서 가장 효과적인 학습방법은 자기들의 좁은 주제 분야 학문에서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¹⁹⁾

교수들의 도서관 이용 기술 습득 경위(표 13)를 살펴보면 교수들은 도서관 이용 기술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습득한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이 제일 많았다(65%). 그 다음은 대학원 학위논문을 준비할 때(16.7%), 외국 도서관 이용시(10.8%), 대학 오리엔테이션

19) Baker, Betsy, "Bibliographic Instruction : Building the Librarian/Faculty Partnership". in *Integrating Library Use Skills into the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ed., Maureen Pastine & Bill Katz. New York : The Haworth Press, 1989. p. 322.

(7.5%)의 순이다. 지금 현재 대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다수의 교수들은 정규적인 도서관 이용 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4> 교수들의 검색 수준



교수들 중에서 몇몇은 습관적인 도서관 이용자이나 대부분은 비정규적 이용자이며 때로는 정상적인 분류표 밖에 있는 자료에 대해서 지독히 무지하다²⁰⁾는 평가도 받고 있다. 주로 경험에 의해서 도서관 및 자료 이용에 대한 지식을 체득한 교수들의 검색 기술 수준에 대한 자신들의 평가(표 14)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자신의 검색기술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41.1%), 그 다음이 중상(22.3%), 조금 미숙(20.5%), 아주 미숙(12.5%), 최고의 수준(2.7%)이다. 스스로 미숙하다고 느끼는 그룹은 32.5%에 불과하고 과반수 이상은 그다지 불만스러워하지 않고 있다. 검색결과를 가지고 느끼는 교수들의 주관적인 기준일 뿐 객관적인 평가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평가에 대해 사서들은 교수들의 검색수준이 다소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5. 교수 서지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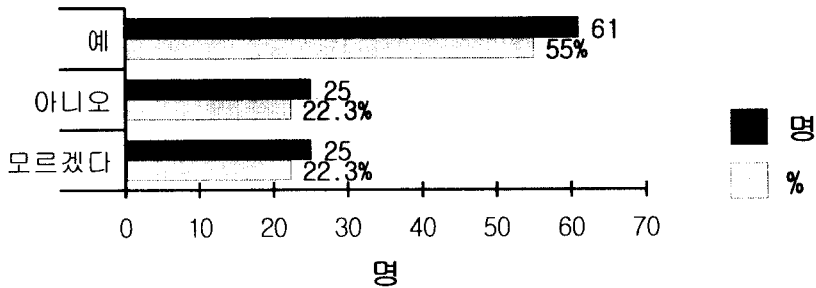
1) 교육 수용과 방법

도서관 이용교육이 일찍부터 활발했던 미국에서도 서지교육에 대한 교수들의 태도는 “교수

20) Eric W. Johnson, "Library Instruction for Faculty Member", in *Library Instruction and Reference Service*, ed., Bill Katz and Ruth A. Frale. New York : The Haworth Press, 1984, p.199.

들 중 다수는 ...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주저하고 있다. 그것은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²¹⁾이라든지 "사서에게 배우고 싶지 않다"²²⁾라고 부정적인 면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15> 서지교육 참여



현재 한국의 대학교수들은 본 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응답자의 65%정도가 체계적인 도서관 이용교육을 받지 못했다. 또 한편으로는 "출판이나? 자멸이나"라는 현 상황에서 많은 연구를 위해 교수들은 다양한 정보매체를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검색이 필수적이다. 교수들은 아직도 서지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을까? 이런 전제에서 도서관에서 교수들을 위한 서지교육이 시행된다면 교수들이 참여할 것인지(표 15), 교육을 수용할 때 선호하는 교육 방법(표 16)을 살펴보았다.

교수들을 위한 서지교육에 대해서 응답 교수들의 55.0%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 결과는 이전의 "사서에게 배우고 싶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와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교수들도 만일 기회가 주어지면 배우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교수들을 위한 서지교육이 지금보다 훨씬 더 보편화되어야한다²³⁾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서지교육이 비교적 진보된 미국의 대학 도서관에서는 교수 및 학생들을 위한 서지교육이 정기적으로, 또는 임시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도서관의 시스템이나 새로운 정보원의 매체가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정보이용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또한 교수사회가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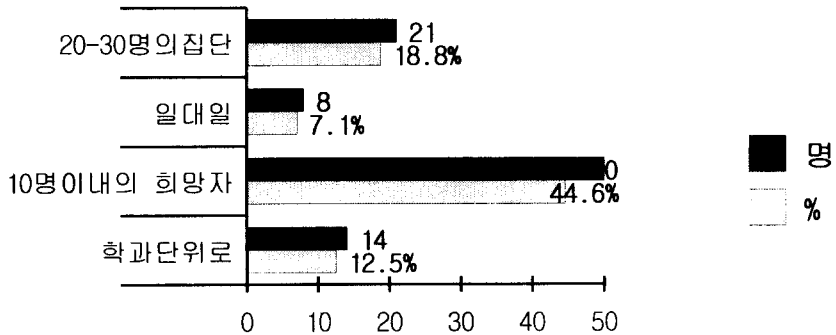
21) A. P. Marshall, "Library Orientation--What's that?", Faculty Involvement in Library Instruction, ed. Hannelore B. Rader(Ann Arbor : Pierian Press, 1976), Eric W. Johnson, "Library Instruction for Faculty Member", in *Library Instruction and Reference Service*, ed., Bill Katz and Ruth A. Fraley. New York : The Haworth Press, 1984. p.199 재인용

22) Baker, Betsy, p. 322

23) Constance, McCarthy, " The Faculty Problem," *J. of Academic Librarianship*, Vol. 11, No. 3(July 1985), p. 144.

점 더 연구 성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배우지 않으면 경쟁에 밀려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6> 희망교육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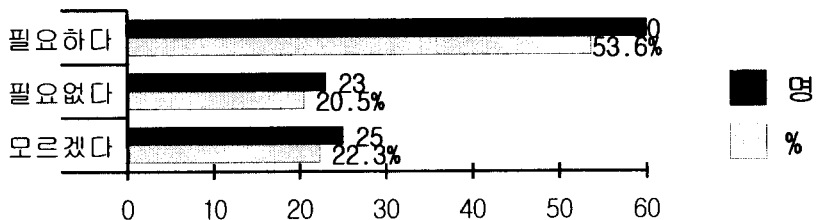


교수들이 선호하는 서지교육의 방법은 10명 이내의 소그룹(44.6%)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20-30명의 집단(18.8%), 학과 단위(12.5%), 일대일의 교육(7.1%)의 순서였다. 교수들의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교육 수준을 결정하는 것²⁴⁾이므로 10명 이내의 소그룹으로 시행하되 교육에 앞서 피교육자들의 수준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효율적이다.

2) 신임교수 서지교육

신임 교수들을 위한 서지교육은 도서관과 교수들의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하고자 하는 도서관측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 대학에서 그다지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표 17> 신임교수를 위한 특별서지교육



24) Eric W. Johnson, p. 202.

신임교수를 위한 서지교육은 도서관의 핵심적인 이용자 그룹인 교수들 중에서 그 대학에 처음으로 부임하는 교수들, 대개 그들은 의욕과 열성을 가지고 안정된 교수생활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서관과 특별 집서 등을 소개하는 기회를 통해서 사서와 친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도서관의 여러 가지 문제에 열의를 가지게 할 수도 있다. 신임교수를 위한 특별 서지교육(표 17)을 공감하는지에 대해 알아본 바, 다수의 교수들(53.6%)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6. 학부생 서지교육

1) 서지교육의 필요성과 필수성

〈표 18〉 학부생 서지교육 필요성

필요하다	30세이전 (%)	31-40세 (%)	41-50세 (%)	51-60세 (%)	61세이상 (%)	무응답 (%)	계(%)
그렇다	6(100.0)	37(92.5)	40(85.1)	14(100.0)	2(66.7)	2(100.0)	101(90.2)
아니다	-	1(2.5)	3(6.4)	-	-	-	4(3.6)
모르겠다	-	1(2.5)	4(8.5)	-	1(33.3)	-	6(8.4)
무응답	-	1(2.5)	-	-	-	-	1(0.8)
계	6(100.0)	40(100.0)	47(100.0)	14(100.0)	3(100.0)	2(100.0)	112(100.0)

〈표 19〉 서지교육은 필수적이다

필수라야 한다	30세이전 (%)	31-40세 (%)	41-50세 (%)	51-60세 (%)	61세이상 (%)	무응답 (%)	계(%)
그렇다	4(66.6)	34(85.0)	35(74.5)	13(92.9)	2(66.7)	2(100.0)	90(80.4)
아니다	1(16.7)	4(10.0)	3(6.4)	-	-	-	8(7.1)
모르겠다	1(16.7)	1(2.5)	8(17.0)	1(7.1)	1(33.3)	-	12(10.7)
무응답	-	1(2.5)	1(2.1)	-	-	-	2(1.8)
계	6(100.0)	40(100.0)	47(100.0)	14(100.0)	3(100.0)	2(100.0)	112(100.0)

거의 모든 대학에서 모든 학문에서 대학 교과과정의 설계를 통제하고²⁵⁾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로서 대학 교육과정 내에서 학부생 서지교육의 필요성(표 18)을 인지하고 있는 지와 그것이 필수적인 교육으로 생각하는 지(표 19)를 살펴보았다.

학부생의 서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수들은 응답자의 90.2%로 아주 높은 편이다.

25) Fran Nowakowski and Elizabeth Frick, p. 118.

2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0권 제4호)

이는 필자가 수행한 1981년도의 연구²⁶⁾ 결과에서 필요성을 인식하는 교수들이 단 10%에 불과하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진보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교수들의 연령과 필요성을 찬성하는 관계를 보면 특히 20대·40대 교수들은 응답자 전원이 찬성하고 있고, 30대 교수들은 92.5%로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지교육이 필수적인 교육과목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룹은 그보다 약간 낮은 80.4%이다. 현재 대학 교양과정의 편제상 '필수'라는 강제성은 점차 폐지되고 있기 때문인지 교수들 연령과의 관계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2) 교수 자신의 전공과의 중요성 비교

교수들의 전공 과목과 비교해서 볼 때 비록 서지교육을 중요하다고 인식할지라도 자기 전공과목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수가 61.6%이다. 교수 자신의 전공과목에 대한 중요시 정도(표 20)는 60대 교수는 66.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40대(66.0%), 30대(60.0%), 50대(57.1%), 20대(50.0%)의 순이다. 이 점에서 볼 때 보수성이 강한 교수들이 자기 전공과목 위주의 강의에 집착할 가능성은 아주 많다고 생각된다.

〈표 20〉 교수 전공과목과의 중요성 비교

나의 교과목이 더 중요하다	30세이전 (%)	31-40세 (%)	41-50세 (%)	51-60세 (%)	61세이상 (%)	무응답 (%)	계 (%)
그렇다	3(50.0)	24(60.0)	31(66.0)	8(57.1)	2(66.7)	1(50.0)	69(61.6)
아니다	1(16.7)	6(15.0)	5(10.6)	3(21.4)	-	-	15(13.4)
모르겠다	1(16.7)	9(22.5)	7(14.9)	2(14.3)	1(33.3)	1(50.0)	21(18.8)
무응답	1(16.7)	1(2.5)	4(8.5)	1(7.2)	-	-	7(6.2)
계	6(100.0)	40(100.0)	47(100.0)	14(100.0)	3(100.0)	2(100.0)	112(100.0)

7. 통합 서지교육

1) 교과목과 서지교육의 통합 의향

통합적인 서지교육은 사서와 과목 담당 강사가 교과목의 계획에서부터 함께 협력하는 것으로 서지교육의 여러 방법 중에서 그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방법의 서지교육은 교과목의 목적과 교과목의 디자인은 도서관 숙제를 중심으로 구축될 것이므로 교수는

26) 강혜영,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이용지도에 관한 연구," 《도서관》, 36권, 5호(1981.9-10), p. 42.

학과목 계획자로서, 사서는 연구조사 목적의 조장자로서 서로가 상호작용과 협력을 포함한 세심한 균형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것²⁷⁾이다.

통합적인 서지교육에서 또 하나의 고려점은 교수들과 사서들이 평소에 인간적인 유대 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는 교육과정에서 사서의 참여가 증대되기 때문이다. 대학 내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사서와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학술 정보 및 출판 정보의 적시적 제공, 참고봉사의 원조와 컴퓨터 문헌 검색의 지원 등을 통하여 각 전공 과목, 특히 교양과목에서 서지교육과 통합하여 강의를 할 때 담당 과목 교수의 의지가 중요하므로 그들의 의향을 살펴보았다(표 21).

이 표에 의하면 통합 의향이 있는 그룹이 41.1%이고, 통합 의사가 전혀없는 그룹이 33.0%이다. 협력할 의향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세 이하의 교수(50.0%)이고, 그 다음은 40대 교수(44.7%), 50대 교수(42.9%), 30대 교수(40.0%)의 순서이나 60대 교수는 아무도 찬성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아직까지 교수들은 각자의 교과목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향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1〉 교과목과 서지교육 통합 의향

통합의향	30세이전 (%)	31-40세 (%)	41-50세 (%)	51-60세 (%)	61세이상 (%)	무응답 (%)	계(%)
예	3(50.0)	16(40.0)	21(44.7)	6(42.9)	-	-	46(41.1)
아니오	-	13(32.5)	16(34.0)	7(50.0)	1(33.3)	-	37(33.0)
모르겠다	2(33.3)	9(2.5)	8(17.0)	1(7.1)	2(66.7)	2(100.0)	24(21.4)
무응답	1(16.7)	2(5.0)	2(4.3)	-	-	-	5(4.5)
계	6(100.0)	40(100.0)	47(100.0)	14(100.0)	3(100.0)	2(100.0)	112(100.0)

2) 사서와의 협력 의향

통합서지교육에서 전문가인 서지교육 전담사서와 협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으로 교수가 사서와의 파트너쉽을 가지는 것이다. 통합 서지교육에서 사서는 교수와 학생을 보다 더 친밀하게 알게 되어 교육과 연구과정에 제안을 제공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 사서는 서지교육의 목적과 필요성을 교수들에게 확신시킴으로써 교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어야 된다.²⁸⁾

통합 교과목을 운영할 때 사서와의 협력 의향(표 22)를 살펴보면 사서와 협력할 의향이 있는 교수들이 응답자의 46.4%인 반면, 거부하는 그룹이 설문 응답자의 36.6%로 나타났다. 그러

27) Baker, Betsy, p. 313.

28) Trudi E. Jacobson and John R. Vallely, "A Half-Built Bridge : The Unfinished Work of Bibliographic Instruction," *J. of Academic Librarianship*, Vol. 17, No. 6 (Jan. 1992), p. 359.

나 연령별로 가장 높은 찬성율을 보인 그룹은 50대교수(57.1%)이고, 그 다음은 30대교수(47.5%), 40교수(44.7%), 20대 교수(44.6)의 순이다. 60대 교수는 전혀 찬성하지 않았다.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는 교수들의 팀티칭이나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의 전문가는 서지교육 전담 사서나 문헌정보학과 교수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교수와 사서가 공동으로 강의하기 위해서는 국수주의적 성격이 강한 교수들이 사서들을 지적 사업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로 전환되는 것이 첫 번째 전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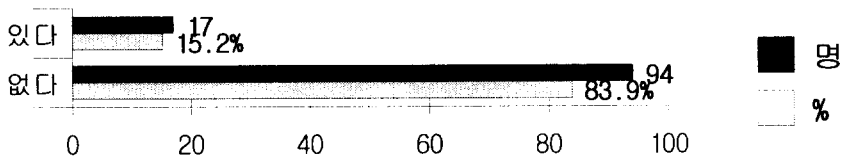
〈표 22〉 교과목 계획시 사서와 협력할 의향

협력 의향	30세이전 (%)	31-40세 (%)	41-50세 (%)	51-60세 (%)	61세이상 (%)	무응답 (%)	계(%)
예	4(44.6)	19(47.5)	21(44.7)	8(57.1)	-	-	52(46.4)
아니오	1(16.7)	14(35.0)	19(40.4)	5(35.7)	1(33.3)	1(50.0)	41(36.6)
모르겠다	-	5(12.5)	4(8.5)	1(7.2)	1(33.3)	1(50.0)	12(10.7)
무응답	1(16.7)	2(5.0)	3(6.4)	-	1(33.3)	-	7(6.3)
계	6(100.0)	40(100.0)	47(100.0)	14(100.0)	3(99.9)	2(100.0)	112(100.0)

3) 사서와의 친분

서지교육의 성공이 고도로 강의교수들에게 달려 있는 반면에 교수와의 성공은 사서에게 달려 있다.²⁹⁾ 통합서지교육에서 사서는 소극적인 감시인이며 장서관리인의 역할을 떠나 적극적인 참여자, 교사, 정보전문가의 역할을 가지게 된다. 또한 주제 전문과목의 일부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들과 협력으로 광범하게 일해야 하며, 때로는 한 팀이 되기도 한다.

표 22-1. 사서와의 친분



29) David Carlson and Ruth H. Miller, "Librarians & Teaching Faculty : Partners in Bibliographic Instruction", *College & Research Libraries News*, Vol.45, No. 9(November 1984), p. 489.

교수들이 평소에 사서와 친분을 가지고 있는가(표 22-1)를 살펴보면 다수의 교수들(83.9%)은 사서와 친분 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도서관이 자동화를 지향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교수들은 중고차 시세와 상호부금의 선택과 같은 비공식적이며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인간 상호관계를 사서에게 원하고 있다.³⁰⁾ 대학 사회에서 사서와 교수가 함께 일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서로간에 존재하는 적대감이라는 주장도 있다.³¹⁾ 계속된 악순환의 결과로 야기된 이러한 현상으로 대학 사회에서 도서관의 위상이 낮을 뿐 아니라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게 만들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서지교육을 위해 교과목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교수와 사서와의 긴밀한 유대를 위해서 도서관과 사서들은 다양한 봉사를 통해 교수 사회와 긴밀한 접촉을 가져야 될 것이다.

4) 교수들의 서지교육 독려

학생들은 그들의 교과과정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만 도서관을 이용한다는 것이 여러 논문에서 지적되고 있다. 더 나아가 도서관 비이용자가 여전히 학과 수업을 아주 잘 할 수 있고, 강의/교과서 신드롬이 여전히 우세하다³²⁾고 까지 논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수의 학생들은 그들이 도서관의 기본 자료원과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을 이용하기 꺼려할 뿐 아니라 도서관 조사를 하여야 하는 연구논문의 작성 등의 숙제에도 너무나 시간 소모적이라는 이유로 연루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³³⁾

교수는 학생들이 정보를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소지하는 것이 문맹퇴치를 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도서관 교육을 홍보하는 원천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교수들에 따라 도서관에 대한 그들의 무관심이 학생에게 전달되기도 하고 생애개발의 중요한 장소로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지교육을 유도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교수들이 평소에 학술정보 자료 활용을 얼마나 독려하고 있는지(표 23)를 살펴보면 교수들 중 다수(57.1%)는 학술정보의 활용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정보의 사용을 가장 많이 독려하는 교수들은 40대 교수들(70.2%)이고, 그 다음은 30대 교수(65.0%), 20대·50대교수들이 각각 50%, 60대 교수(33.3%)의 순이다.

30) Susan Griswold Blandy, "What Do Faculty Want?" in *Assessment and Accountability in Reference Work*, ed. Susan Griswold Blandy, Lynne M. Martin and Mary L. Strife. New York : The Haworth Press, c1992. p. 187.

31) Carpenter, Kenneth E., "The Librarian-scholar", *J. of Academic Librarianship*, Vol. 23, No.5 (September 1997), p. 398.

32) Lubans, John, "Introduction : Seeking a Partnership between the Teacher and the Librarian," in *Progress in Educating the Library User*. New York : Bowker, 1978. p. 3.

33) Betsy Baker, p. 315.

〈표 23〉 학술정보자료 활용의 독려성

독려 여부	30세이전 (%)	31-40세 (%)	41-50세 (%)	51-60세 (%)	61세이상 (%)	무응답 (%)	계(%)
예	3(50.0)	26(65.0)	33(70.2)	7(50.0)	1(33.3)	-	70(62.5)
아니오	1(16.7)	7(17.5)	7(14.9)	3(21.4)	-	-	18(16.1)
경우에 따라	1(16.7)	6(15.0)	7(14.9)	4(28.6)	2(66.7)	2(100.0)	22(19.6)
무응답	1(16.7)	1(2.5)	-	-	-	-	2(1.8)
계	6 (100.1)	40 (100.0)	47 (100.0)	14 (100.0)	3 (99.9)	2 (100.0)	112 (100.0)

그러나 실제로 필자가 강의하였던 “도서관 정보자료 이용법”의 수강생들과의 면담이나 과제를 통해서 교수들이 과제물 작성에 극히 일부의 자료만 활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었다. 그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응답도 상당히 주관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선행연구에 나타난 결과³⁴⁾에 비하면 상당히 발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대학도서관은 핵심적인 이용자인 교수들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도서관 봉사를 확대 발전시킬 수 있다. 도서관에 대한 교수들의 태도는 또 다른 이용자 그룹인 학생들과 도서관의 관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효율적인 서지교육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교수들의 도서관과 서지교육에 대한 인식도가 먼저 구명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교수들의 도서관 이용행태 및 서지교육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C대학에서 강의담당 교수 2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그 중 56%가 회수되었다.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문항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교수생활과 개인적인 변인과 도서관 이용행태 및 서지교육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몇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교수들이 도서관을 방학중에 가장 많이 이용하고, 이용빈도는 1달에 1번 이상이 가장 많고, 주로 선호하는 자료는 학술잡지이다. 자료 검색과 대출은 대개 교수들이 스스로 하고 있고, 연령이 젊은 교수가 도서관을 더 자주 이용하고 있다.

34) 강혜영, p. 42.

둘째, 교수들은 학술지의 구독이 가장 선호하고(33.8%), 도서관 상호대차가 그 다음(20.3%)이다. 본교의 도서관에서 자료를 구할 수 없을 경우에 다른 대학의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나 실제로 상호대차를 이용해본 경험은 많지 않다(72.3%). 한 도서관에서 모든 학술지와 단행본의 구입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므로 도서관 직원의 적극적인 봉사와 홍보를 통해서 상호대차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교수들은 경험에 의해 도서관 이용기술을 습득하였고(65%), 그들은 스스로 보통의 검색 수준(41.1%)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차자료는 충분히 사용하고 있고, 참고사서는 교수들의 정보검색을 도우거나 학부생에 대한 서지교육, 참고실 관리, 소장 위치 안내 등 소극적인 봉사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학의 참고정보봉사가 지극히 소극적이었던 것에 기인되는 것이므로 적극적인 역할 전환과 정보봉사를 위해서 교수들의 새로운 연구 계획에 필요한 서지 조사를 대행하거나 핵심적인 도서관 이용자를 중심으로 SDI 봉사 등을 제공하여 참고정보봉사의 내용을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교수들을 위한 서지교육에 참여할 의향은 많은 편(55.0%)이며, 10명 이내의 희망자 그룹을 선호(44.6%)하고 있다. 또한 신입교수들을 위한 서지교육에 대해서도 다수(53.6%)의 교수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지식 기반 사회에서 정보 이용 기술의 중요성은 한층 더 강조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정보 도구의 이용을 위한 교수들을 위한 서지교육이 도서관의 주요 업무로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대학도서관에 이용자 교육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섯째, 90.2%의 교수가 학부생 서지교육이 필요하지만 필수적인 교과목으로 인식하는 교수는 80.4%였다. 그러나 각자의 전공과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53.6%). 일반적인 교수들의 전공 중시 경향을 전환을 시킬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이용을 통한 효과로써 필수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여섯째, 통합 서지교육을 시행할 의사가 있는 교수는 41.1%였다. 통합적인 교과목 운영에서 사서와 협력할 의향이 있는 교수는 46.4%이나, 평소에 사서와 친분이 있는 교수는 15.2%에 불과하다. 57.1%의 교수들은 학부생의 교과목 강의에서 도서관 자료의 활용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교수와 사서가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보다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질수 있도록 노력하여 교수들로 하여금 서지교육에 연계되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부록〉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헌정보학을 전공하는 강혜영입니다.

본 설문지는 <교수들의 대학도서관 이용행태와 서지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에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소속 : _____ 대학 _____ 학과
 2. 직위 : ①__ 시간강사 ②__ 전임강사 ③__ 조교수 ④__ 부교수 ⑤__ 교수
 3. 강의 년수 : ①__ 5년이하 ②__ 5~10년 ③__ 11~20년
 ④__ 21~30년 ⑤__ 30년 이상
 4. 성별 : __ 남 __ 여
 5. 나이 : ①__ 30세 이전 ②__ 31~40세 ③__ 41~50세
 ④__ 51~60세 ⑤__ 61세 이상
-
6.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__ 방학중 ②__ 학기초 ③__ 학기말 ④__ 학기중간
 7.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①__ 일주일에 한번 이상 ②__ 한달에 한번 이상 ③__ 2개월에 한번
④__ 3개월에 한번 ⑤__ 한 학기에 한두번 ⑥__ 이용하지 않는다
 8. 주로 이용하는 자료는 어떤 것들입니까?
①__ 학술잡지 ②__ 단행본 ③__ 학위논문 ④__ CD 롬 · 온라인 DB
⑤__ 기타 참고자료
 9.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고 계신다면 그 이유는
①__ 도움이 되는 자료가 없다 ②__ 도서관이 너무 멀다
③__ 시스템이 불편해서 ④__ 사서의 불친절한 태도
 10. 도서관의 서비스 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① 학술잡지 구독__ ② 정보검색대행__ ③ 문헌복사서비스__
④ CD-ROM검색__ ⑤ 도서관상호대차__ ⑥ 기타()
 11. 연구논문이나 프로젝트 수행에 앞서 그 주제 분야의 색인지나 초록지를 이용하십니까(인터넷 검색 포함) : ①__ 예 ②__ 아니오 ③__ 경우에 따라서

2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 30권 제 4호)

23. 선생님은 대학과정을 이수하는데 도서관 자료이용법을 반드시 알아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__ 예 ②__ 아니오 ③__ 잘모르겠다

24. 선생님의 학과목에 대한 교육이 학부생들에 대한 도서관 이용법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__ 예 ②__ 아니오 ③__ 잘모르겠다

25. 선생님의 강의 과목(기초과목 혹은 교양선택과목) 중에서 반드시 도서관 정보자료의 검색법을 활용하도록 하는 강의계획을 세울 의향이 있습니까?

- ①__ 예 ②__ 아니오 ③__ 모르겠다

26. 만약 도서관 자료검색법을 활용하도록 계획된 학과목을 강의하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서와 공동으로 강의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①__ 예 ②__ 아니오 ③__ 잘모르겠다

27. 선생님은 리포트를 부과할 경우 학술잡지나 전자정보원을 이용하도록 학생들에게 독려하고 계십니까?

- ①__ 예 ②__ 아니오 ③__ 경우에 따라

- 감사합니다 -